

중국어 상의 객관성과 주관성*

조경환**

<목 차>

1. 서론
2. 내재상의 객관성
3. '了'의 객관성과 주관성
4. '着'의 객관성과 주관성
5. '過'의 객관성과 주관성
6. 결론

1. 서론

언어학에서 상(aspect)은 가장 많이 회자되는 개념이지만, 가장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더욱이 중국어의 상의 경우 교차적인 개념이므로 좀 더 복잡해 질 수 있는데, 이는 즉 대표적인 외재상(outer aspect) 표지인 '了·着·過'가 부분적으로 이른바 '내재상(inner aspect)'의 합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객관성과 주관성의 관점에서 중국어의 상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중국어의 상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언급되는 주관성(subjectivity)은 화자와 주어의 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09-351-A00100).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고, 주관화(subjectification)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관성 강화의 과정을 일컫는데, 본고에서는 주로 통시적인 각도에서 다룰 것이다.²⁾ 그럼 먼저 내재상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2. 내재상의 객관성

Smith(1991) 이후 상(Aspect)은 크게 상황상(situation aspect)과 관점상(viewpoint aspect)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Smith(1991) 이전에 이미 상황상과 비슷한 개념이 존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동작류(aktionsart)라는 것이다. 동작류는 원래 독일어로 '행위의 종류(kind of action)'라는 의미로, 원래 의미인 동사의 종류에서 그 용법이 확장되어 한 상황의 고유한 시간적 특성(정적/동적, 순간/계속, 종결/비종결, 계속/반복)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었다.³⁾ 실제로 Comrie(1976), Bache(1982), Brinton(1988) 등은 '동작류'를 Smith(1991)의 '상황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동작류'나 '상황상'이라는 용어 대신에 '내재상(inner aspe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데,⁴⁾ 내재상은 말 그대로 동사와 논항 그리고 부사류 등에 의해 표현되는 한 상황 내부의 시간 구조를 의미한다.

반면 '관점상'은 마치 카메라의 렌즈처럼 하나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특정 시점을 선택하며, 주로 동사의 굴절 형태소 등에 의해 표시되므로 문법적인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관점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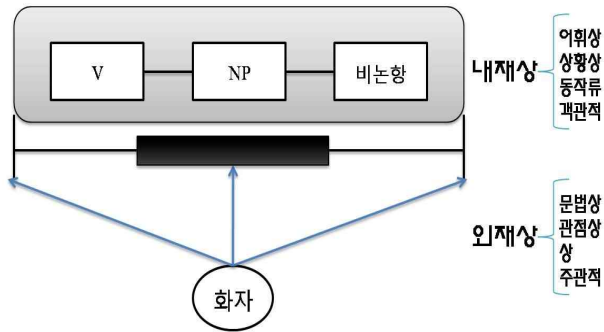
2)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조경환(2008:92-102) 참조바람.

3) 최해영(1997:50) 역시 동작류(aktionsart)를 동사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동사의 논항 및 부사류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4) 필자가 아는 바로는 Verkuyl(1993:12)이 가장 먼저 '내재상(inner aspect)'과 '외재상(outer aspect)'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다.5) 하나는 화자가 사건의 전체를 보는 것을 나타내는 '완료상(perfective)'으로 '了', '過' 등이 있고, 다른 하나는 화자가 사건의 내부를 보는 것을 나타내는 '미완료상(imperfective)'으로 '着', '(正)在'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또한 '상(aspect)'이나 '관점상'이라는 용어 대신에 '외재상(outer aspe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데, 내재상과 외재상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내재상과 외재상⁶⁾



내재상은 화자의 시점과 상관없이 동사와 (기타) 논항과의 객관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재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화자의 사건에 대한 화자의 시각을 나타내므로, 내재상보다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내재상은 외재상보다 객관적이다.

5) Smith(1991:364)는 완료상, 미완료상외에도 관점상 형태소가 없어 문장을 상적으로 모호하게 만드는 중립 관점(neutral viewpoint)을 제시했다. 이 중립 관점은 본고의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였다.

6) Bache(1982:72)와 Brinton(1988:3)에 근거하여 내재상과 외재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재상(inner aspect)	외재상(outer aspect)
①	어휘상(lexical aspect)	문법상(grammatical aspect)
②	상황상(situation aspect)	관점상(viewpoint aspect)
③	동작류(aktionsart)	상(asepct)
④	객관적(objective)	주관적(subjective)

- (1) 내재상 < 외재상
 (동사, 논항, 비논항) (완료상, 미완료상)

이제 중국어의 대표적인 상표지라고 할 수 있는 ‘了’·‘着’·‘過’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3. ‘了’의 객관성과 주관성

같은 상 표지라 할지라도 ‘了₁’과 ‘了₂’간에는 미세하기는 하지만 주관성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了₁’은 완료상(perfective) 표지, ‘了₂’는 완료(perfect) 표지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직감적으로 ‘了₂’가 ‘了₁’보다는 좀 더 주관적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화자가 단순히 밖에서 사건을 관망하는 ‘了₁’에 비해, ‘了₂’는 화자와 청자가 참여하는 대화의 문맥에 적극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Li & Thompson(1980/1989:241)은 ‘了₂’의 기본적인 성질이 ‘현재와 관련된 상태(Currently Relevant State)’를 표시하는 것으로 변화된 상태, 잘못된 가정의 수정 등을 나타낸다고 보았다.⁷⁾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변화’라는 것이 객관적인 상태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화자의 인식상의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下雨了”라는 말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만이 아니라, 화자가 비가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막 알았을 때에도 쓸 수 있다(Chao 1968/2004:800).

‘了₁’과 ‘了₂’의 주관성의 차이는 아래의 예문 (2)에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7) Li & Thompson(1981/1989:241)은 ‘了₂’가 그 밖에도 ‘현재까지의 진전을 보고할 경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진술의 종결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인다고 하였다.

- (2) a. 我看了三本書。
 나는 세 권의 책을 보았다.
 b. 我看了三本書了。(Li & Thompson(1980/1989:258)
 (무슨 이야기야!) 나는 책을 세 권 읽었는데.

‘了₁’은 단순히 ‘내가 세 권의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반면, ‘了₂’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가 오후 내내 잠만 잤다고 꾸짖는 것에 대하여 청자의 가정이 틀렸음을 화자가 강하게 표현함을 표시한다.⁸⁾

한편 Chang(2003:111)은 중국어 대화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형태들의 ‘了₂’는 비교적 높은 주관성을 지닌다고 하였으며, 특히 ‘了₂’는 접속사 ‘就’와 빈번하게 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 (3) a. [我 + 인지 동사(忘) + 了]
 我忘了!
 b. [질/VP + 就 + 어휘 항목(A·V) + 了]
 他過一陣子就好了啊!

다음으로 또 다른 유형의 ‘了’를 살펴보도록 하자. Chao(1968/2004:801)가 아래와 같은 문장에 쓰인 ‘了’가 ‘과도한 정도(excessive degree)’를 나타낸다고 논의한 이래, 몇몇 학자들(金立鑫 2000, Chang 2003)이 이러한 ‘了’의 주관성에 주목하였다.

- (4) 東西太貴了。 *東西很貴了。 (金立鑫 2000:215)
 물건이 너무 비싸군.

예문 (4)의 ‘了’는 상 의미보다는 물건의 가격이 화자의 예상을 초과했음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了’는 주로 정도부사 ‘太’·‘最’와 공기한다(金立鑫

8) Li & Thompson(1980/1989:258) 참조. 이은수(2003:12)는 ‘了₁’과 ‘了₂’의 공통점을 ‘상대적 선시성’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차이점으로 ‘了₁’은 ‘상대적인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반면, ‘了₂’는 참조시간과 관련된 ‘완료’를 나타내므로, ‘了₁’과 ‘了₂’ 사이에는 시간 범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2000:215). 金立鑫(2000:215)은 만일 위와 같은 문장에서 ‘了’를 제거한다면 화자가 표현하는 강조·과정의 요구가 없어진다고 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어기사 성질의 ‘了’를 ‘了₄’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Chang(2003)은 ‘了₄’가 ‘了₂’보다 화자의 의도를 좀 더 반영한다는 점에서 보다 주관적이라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好+了₄’가 쓰인 절 유형의 75%(12/16)는 화자의 의도와 관련된 반면 ‘好+了₂’는 36%(3/22)만이 화자의 의도와 연결되며, 대부분(59%, 13/22)은 묘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動相보어 성질을 가진 ‘了’(이하 ‘了₃’라고 칭함)를 살펴볼 것인데, 이에 앞서 動相보어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Chao(1968/2004:461)는 ‘動相보어(Phase complement)’를 행위에서의 결과 또는 목표보다는 첫 번째 동사에서의 행위의 형세를 표시하는 보충어라고 하였다. Li & Thompson(1981/1989:88) 역시 이와 비슷한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그들은 ‘動相보어’가 첫 번째 동사의 결과보다는 첫 번째 동사에 의해 묘사되는 동작의 유형이나 정도를 나타낸다면, ‘完住到好’등이 있다고 하였다.

Chang(2003), Li & Thompson(1981/1989) 등 대부분의 학자들은 ‘了₃’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了₃’의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국부적이기 때문인데, ‘了₃’의 존재를 보다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결과요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把字句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 | | |
|-----------------|---------------------------|
| (5) a. *他把書買了。 | b. 他把書賣了。
그는 책을 팔았다. |
| (6) a. *他把年曆貼了。 | b. 他把年曆揭了。
그는 달력을 떼었다. |
| (7) a. *他把帽子戴了。 | b. 他把帽子摘了。
그는 모자를 벗었다. |

위의 예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a류는 [+부착, +획득]동사이며, b류는 [+제거]동사임을 알 수 있다.⁹⁾ 馬希文(1982), 木村英樹(1983), 沈家煊

(1998) 등과 같은 많은 학자들은 b류의 ‘了’는 ‘掉’에 상당하며, 이들은 a류와는 달리 결과보어 성질이 내포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動相보어성, 즉 ‘了₃’이다.

木村英樹(1983)에 따르면 이와 같은 ‘了₃’는 상표지 ‘了₁’과 다음과 같은 분포상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1> ‘了₁’과 ‘了₃’의 비교

	了 ₁	了 ₃
‘的’자	*我把他穿了 ₁ 的皮鞋擦了一擦。	我把他脫了 ₃ 皮鞋往牀上一放。
‘沒’	*他們沒蓋了 ₁ 房子。	他們沒拆了 ₃ 房子。
명령문	*穿了 ₁ 大衣!	脫了 ₃ 大衣!

그렇다면 왜 ‘了₃’는 [제거]자질이 있는 동사와 공기할 때에만 출현하는가? 이에 관하여 Yang(1995)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제거류 동사들은 이미 명확한 존재를 가졌으므로 把字句에 결과보어가 없이 쓰여도 쉽게 완성의 해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부착, 획득] 동사와 함께 쓰이는 빈어는 생산과정이 완성될 때까지 명확한 존재를 가질 수 없으므로, 결과보어를 부가하여 의미가 돌출될 때까지는 완성의 해석을 얻기가 힘들다. 이러한 Yang(1995)의 관찰이 《朱子語類》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楊永龍(2003)의 조사에 따르면 《朱子語類》에 출현한 800여개의 ‘V了O’ 구문에서 약 75%정도가 ‘拆, 吃, 割, 關, 壞, 殺, 傷, 失, 死, 忘, 瞎, 走’ 등의 제거류 동사들이다.¹⁰⁾

- (8) 切須去了外慕之心!
외물에 이끌리는 마음을 철저히 제거해라.

9) 呂叔湘(1948)·邵敬敏(1985) 등은 ‘忘, 吃, 放, 拆, 殺, 刪, 鉸, 減, 賣……’와 같은 동사들은 ‘소실’이라는 공통의미를 가지며, ‘동사+了’는 ‘동사+掉’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10) 만일 생산류 동사와 제거류 동사가 함께 쓰인다면, “扶得東邊, 倒了西邊; 知得這裏, 忘了那裏”와 같이 통상적으로 전자 뒤에는 ‘得’가 오며 후자 뒤에는 ‘了’가 온다. 물론 《朱子語類》의 動相보어 ‘了’ 앞에 쓰이는 동사는 加減과 상관없는 중성 동사가 쓰일 수도 있었다. 楊永龍(2003)은 생산류 동사를 ‘加類’ 동사라고 불렀으며, 제거류 동사를 ‘減類’ 동사라고 불렀다.

비록 《朱子語類》에 출현하는 제거류 동사들은 'V了' 형식보다는 'V了O'에 더 많이 쓰였지만,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제거류 동사와 動相보어 '了'와의 연관성은 역사적으로 그 내원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확실히 '제거류'의 동사와 공기하는 '了'가 動相보어 성질을 지녔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把字句'('把-NP V了')에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는 이와 같이 '了'간에도 주관성의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관화는 주관성 강화의 과정이므로, 이러한 과정은 통시적으로 관찰되어야만 한다. 楊永龍(2003)은 《朱子語類》의 '了'가 [완성 의미 동사 > 動相보어 > 완료 표지 > 기시상 표지 > 어기사] 순의 문법화 과정을 겪으면서 화자의 사건에 대한 관찰도 이에 상응하여 변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2> 《朱子語類》의 '了'¹¹⁾

'了'의 성질	화자의 사건에 대한 관찰	예
완성 의미 동사	동작의 종결점에 대한 관찰	今人做這一事未了, 又要做那一事, 心下千頭萬緒。 (요즘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다.)
動相 보어	동작의 결과에 대한 관찰	如人一日只吃得三碗飯, 不可將十數日飯都一齊吃了。 (사람이 하루 세끼만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十數日의 밥을 한꺼번에 다 먹을 수는 없다.)
완료 표지 ¹²⁾	사건을 나누지 않은 전체적인 관찰	義如利到相似, 都割斷了許多牽絆。 (義는 예리한 칼과 같아 많은 방해들을 잘라낸다.)
기시상 표지	상태의 시작점에 대한 관찰	知得分明了, 方能慎獨涵養。 (분명하게 알아야 慎獨할 수 있다.)
어기사	심리 시점	韓退之雖知有這物事, 又說得太闊疏了。 (한유는 이 일을 비록 알고 있었으나, 또 너무 소략하게 설명했다.)

11) 최규발·조경환(2008:296)에서 재인용.

12) 楊永龍(2003)은 '완료(Perfect=了₂)'를 '완료상(Perfective=了₁)'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여 함께 논의하였다.

楊永龍(2003)은 마지막 단계의 여기서 ‘了’는 상 의미를 표시하기 보다는 주로 정도·원인 등의 신정보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본고에서 언급되어지는 ‘了₄’이며, ‘了₄’ 역시 주관화의 과정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了’의 주관성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9) ‘了’의 주관성: [了₃ < 了₁ < 了₂ < 了₄]

4. ‘着’의 객관성과 주관성

학자들마다 세부적인 분류에는 차이가 있지만, ‘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徐丹(1992:458)은 “牆上挂着雨”와 같이 정태적인 동사 뒤의 ‘着’는 상태의 지속을 강조하는 반면, “外面下着雨”와 같이 동태적인 동사 뒤의 ‘着’는 동작의 지속을 강조하며 동작의 끝점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정태적인 동사 뒤의 ‘着’를 ‘着₁’으로, “外面下着雨” 동태적인 동사 뒤의 ‘着’를 ‘着₂’라고 하겠다.

그러나 만약 동사의 [역동]자질이나 처소와의 연관성만을 고려한다면, 아래와 같은 문장의 성립 여부는 설명할 수 없다.

- (10) a. 他穿着₁大衣 b. *他脫着₁大衣
그는 외투를 입고 있다.
- (11) a. 他留着₁胡子 b. *他刮着₁胡子
그는 수염을 기른다.

이에 관하여 木村英樹(1983)는 동사의 의미자질에 주목하였는데, 즉 ‘了₃’와 반대로 ‘着₁’은 [+제거]동사와 공기하지 않고, [+부착]동사와 공기하여 受事의 결과 상태를 표시한다. 木村英樹(1983)에 따르면 이러한 ‘着₁’은 ‘着₂’와 분포상의 차이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着1'과 '着2'의 비교

	着 ₁	着 ₂
'的'자	他向桌子上擺着 ₁ 的碟碗看了一眼。	*他看着 ₂ 的書是《水滸》。
'沒'	桌子上沒擺着 ₁ 碟碗。	*外頭沒下着 ₂ 雨。
'已經'	我起來的時候，他已經穿着 ₁ 大衣。	*我起來的時候，他已經看着 ₂ 報紙。
'在'	*他在留着 ₁ 胡子。	他在刮着 ₂ 胡子。

위와 같은 현상들은 '着₁'이 상 표지로 완전히 문법화 되지 않았으며, 어휘적 단계에서 動相보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말해준다.¹³⁾

요컨대 '着'의 특징은 크게 [부착]과 관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즉 [부착]과 [지속] 자질로 요약할 수 있다(陳忠 2009).¹⁴⁾ '着'의 이러한 이중성은 아래와 같은 문장의 중의성에서도 알 수 있다.

(12) 詩人穿着時新的夾克，好不得意。(Xiao & McEnery 2004:187)

- a. 시인은 최신식 재킷을 입고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 b. 시인은 최신식 재킷을 입으면서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위의 예문 (12)의 동사 '穿'은 [부착] 자질이 돌출되어 정태적인 상황(해석 a)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穿'은 활동 동사이므로, 동태적인 상황(해석 b)을 나타낼 수도 있다.

비록 Xiao & McEnery(2004:186)는 '着'의 動相보어 성질을 부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예문들에서 '着'는 지속성만을 나타낸다고 보았지만, 아래의 예 (13)에 쓰인 동사 '有'·'笑' 자체에는 [부착]자질이 없으므로, 動相보어로 보기

13) '着'의 [부착]의미는 把字句에서 좀 더 분명하게 찾아 볼 수 있다. '把字句'에 쓰이는 '着'은 동작을 행한 후 受事의 구체적인 결과 상태인 '어느 장소에 부착하다' 또는 '보존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把書扔着!”에서는 동사 '扔'과 '着'가 의미충돌을 일으키게 되므로 비문이 되고, “把書帶着!”에서는 동사 '帶'와 '着'가 의미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정문이 된다.

14) 陳忠(2009)은 [부착]자질과 관련 없는 '着'의 경우 '(正)在'와 공기하거나 대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黎天睦(Light 1991)는 '着'의 기본성질을 '관성(inertia)'이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等着!”와 같은 명령문에서는 지속의미가 없으며, 상태와 과정 모두를 표시하는 중의적인 문장인 “湯熱着呢”가 존재하므로 지속성만으로는 '着'의 성질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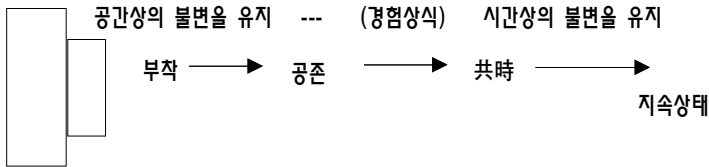
힘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 (13) a. 對案犯有着深刻的印象。
피의자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 b. 毛澤東笑着對他說 [……] (Xiao & McEnergy 2004:186)
모택동이 웃으면서 그에게 말하길, [……]

따라서 ‘着’를 단순히 지속성만을 강조하는 미완료상 표지로 보는 견해는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着’의 근본적인 자질인 [부착]을 경시하여 결과적으로 ‘着’의 動相보어적인 성질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着’의 이 두 자질간의 관계에 대하여 陳忠(2009:79)은 ‘환유’를 통해 아래의 그림 <4-1>과 같이 공간적인 자질인 [부착]에서 시간적인 자질인 [지속]으로 변했다고 보았다.

<그림 4-1> ‘着’의 변천과정(陳忠 2009:79)



위의 그림 <4-1>에서 알 수 있듯이 ‘着’가 이렇게 [부착]동사와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着’자체의 내원과 관련이 깊다. 즉 원래 ‘着(著)’는 ‘附着’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였는데, 漢代이후 ‘V+著’ 연동문에서 점차 문법화 되었으며, 이러한 연동문에 쓰이는 빈어가 다양해짐에 따라, ‘著’ 역시 여러 가지 의미로 파생되었다. 林新平(2006)에 따르면 《祖堂集》에 쓰이는 ‘着(著)’는 [동사 < 動相보어 < 상 표지 < 어기사] 순으로 변천하였는데, 이를 정리 하면 아래의 표 <4-2>와 같다.

<표 4-2> 《祖堂集》의 ‘著’

	구조	‘著’의 의미	예문
동사	V+O	著衣, 安置	身被一破納, 脚著娘生褲。 (몸에는 헤어진 누더기 한 벌을 입었고, 다리에는 엄마가 낳아준 바지를 걸쳤다.)
	V1+V2‘著’ ¹⁵⁾	貪戀, 依附	法法依著, 識性無有自在分。 (법마다 집착되어서 자유로워질 소질이 전혀 없나니.)
動相보어	V+著+(受事 빈어)	住	師便把西堂鼻孔拽著。 (선사께서 서당의 코를 잡아당겼다.)
	V+著+처소 빈어	在	師云: “大德龜毛拂子冤角柱杖藏著何處?” (선사께서 대답했다: “대덕아! 거북이 털의 불자와 토끼 뿔의 지팡이는 어디다 두었느냐?”)
	V+著+대상빈어	到	趙州云: “遇著個太伯。” (조주선사가 말하길: “태백을 만났구나.”)
상표지	V+著+(빈어/V2)	완료상	何年飲著聲聞酒, 迄至如今醉未醒。 (어느 해에 성문의 술을 마시었기에,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노.)
	V+著+(빈어)	지속상	岩云: “如無燈夜把著枕头。” (“마치 어두운 밤에 베개를 만지는 것 같으요.”)
어기사	V+(빈어)+C+著	명령, 금지	師云: “坐却著。” (巖頭선사가 말하길: “앉혀라.”)

위의 표 <4-2>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대표적인 미완료상 표지라고 할 수 있는 ‘着’도 한때는 완료상 기능이 있었다는 점이다. 완료상 ‘着’가 쓰인 문장은 종결 빈어를 지닌 완수 상황이며, 동사는 동태·지속·완성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완료상 ‘着’는 動相보어의 ‘着’로부터 파생된 용법으로 다른 완료상인 ‘了₁’이 일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林新平

15) 비록 曹廣順(1986:28)은 ‘貪著, 愛著, 戀著’등에서 ‘著’는 동작 지속 또는 결과 획득의미를 내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고에서는 《祖堂集》의 다른 예들을 고려해볼 때, ‘著’가 여전히 ‘연연하다’라는 동사 의미를 지닌다고 본 林新平(2006)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동사 범주에 포함시켰다.

2006:90). 또한 여기서 성질의 ‘着’ 역시 《祖堂集》 이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것으로 《祖堂集》부터 서서히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소멸되었다(孫錫信 1999:86).

한편 陳前瑞(2008:264)는 초점성과 주관성의 반비례 관계를 논의 하였는데, 즉 초점성이 높으면 주관성이 낮으며, 초점성이 낮으면 주관성이 높다.¹⁶⁾ 이러한 설명은 ‘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動相보어인 ‘着₁’이 미완료상 표지인 ‘着₂’보다는 당연히 초점성이 높으므로 주관성이 낮다. 따라서 ‘着’의 주관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4) ‘着’의 주관성: [着₁ < 着₂]

5. ‘過’의 객관성과 주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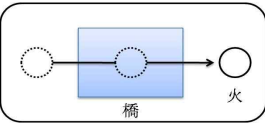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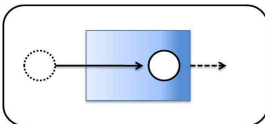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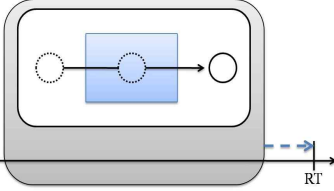
이미 여러 학자들(Li & Thompson 1981, 吳雲 2004, Pan & Lee 2004)이 동사 ‘過’의 기본의미는 ‘어느 한 탄도체가 원점을 출발하여 어느 한 장소를 경과한 뒤에 다른 장소에 도달하는 것’¹⁷⁾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아래의 표 <5-1>의 영상도식 ①로 나타낼 수 있다.¹⁸⁾

16) 陳前瑞(2008:264)는 초점도가 높은 표지는 개체 또는 부분 동작에만 국한되는 반면, 초점성이 낮은 표지는 사건 전체 또는 여러 장면의 사건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초점성이 높은 표지로부터 낮은 표지로 변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그는 초점성 이론에 근거하여 중국어 미완료상 표지들의 주관성이 [着 > 正 > 正在 > 在 > 呢]순이라고 보았다.

17) 동사 ‘過’는 공간 영역에서 시간 영역으로 파생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시간 이동은 공간이동과는 달리 두 가지 종류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過了三天’과 같은 ‘자아 이동’이 있을 수 있으며, ‘三天已過’와 같은 ‘시간 이동’이 있을 수 있다.

18) 비록 ‘過’의 변형된 영상도식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동사 ‘過’의 원형의미에 대한 영상도식은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陳忠(2009)은 ‘過’의 기본 의미를 어떤 지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본 반면, 박종한(1996:332)은 동사 ‘過’의 중요한 의미 특징을 공간상의 거리를 가로 질러 지나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넘어가는 것’ 역시 ‘통과하는 것’의 변이이므로 본고에서는 박종한(1996)의 견해를 따르겠다.

<표 5-1> '過'의 유형과 영상도식

		영상도식	예문
①	동사 過		“火車從橋上駛過” 기차가 다리 위를 지나갔다.
②	過 ₁		A: 《紅樓夢》你看過 ₁ 沒有了? 넌 《紅樓夢》을 다 봤니? B: 還沒有呢。 또는 還沒有。 아직 다 보지 못했어. (吳雲 2004:69)
③	過 ₂		A: 《紅樓夢》你看過 ₂ 了沒有? 넌 《紅樓夢》을 본 적 있니? B: 還沒看過 ₂ 。 아직 보지 못했어. (吳雲 2004:69)

한편 '過₁'은 어느 특정 사건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성질상 아직 動相 보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¹⁹⁾ 자주 '完' 등으로 대체되는데, 예를 들면 "吃過飯再走"는 "吃完飯再走"라고도 말할 수 있다. '過₁'의 부정은 '還沒V' 또는 '還沒有'이며, '過₁'의 영상도식은 표 <5-1>의 ②와 같다.²⁰⁾ 위의 영상도식에서 '過₁'은 동사일 때와는 달리 동작의 완성을 표시하므로, 완성 부분이 윤곽부여 되었다.

'過₂'는 일반적으로 경험상 표지라고 알려졌는데, 이는 '曾經'과 자주 공기하며, 부정형식은 '沒V過'이다. '過₂'의 영상도식은 표 <5-1>의 ③과 같다. 이 도식에서 '過₂'는 상 표지이므로, '過₁'과 달리 시간축이 추가되었으며 사건이 참

19) Leslie(2002:76)는 '過₁'은 [지나감은 완성이다(PASSING IS COMPLETING)] 은유가 작용하여, 앞 동사의 완성을 표시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20) 이 도식은 박종한(1996:348)의 도식을 수정한 것이다. 그는 '過₁'을 시제와 상관없는 개념으로 보았으므로 시간을 배제하였다.

조 시간(RT) 전에 끝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過₂'는 '過₁'과 달리 시간 영역까지 고려되어야 하며, '過₂'의 이러한 투과성은 공간 영역에서 시간 영역으로 사상될 때에도 유효하여 참조시간(RT) 이전에 사건을 위치시키는 '경험상 표지'로 발전하게 된다. 이은수(2003:106)는 이러한 과정을 '過₂'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過₁'과 '過₂'의 성질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하여 '過'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林新平(2006)은 《祖堂集》에 출현하는 '過'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 《祖堂集》의 '過'

	지위	형식	예문	기능
①	V	단독 동사	跨水者, 過海也。 (물을 건넌다'함은 '바다를 건넌다'는 뜻이요.)	공간 이동
			某甲若不遇和尚, 空過一生。 (제가 만일 화상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일생을 헛되이 보낼 뻔 하였습니다.)	시간 이동
②	방향 보어	V+過	大師云: "犹在這裏, 何曾飛過?" (대사께서 말했다. "아직 여기에 있는데 언제 날아갔다 하는가?")	물체의 위치 이동
		V+過+O	師云: "若殺人, 泊錯放過者個漢." (선사께서 말했다: "몹시도 사람을 괴롭히는구나! 하마터면 잘못해서 저 찰지를 놓칠 뻔 하였구나!")	위치 이동이 통과하는 受事표시
③	動相 보어	勸+過	又時上堂云: "四方來者, 從頭勸過, 勿去處底, 竹片痛快." (또 언젠가 상당히 말했다: "사방에서 온 이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정하여서 갈 곳이 없는 무리는 대쪽으로 아프게 때리리라.")	동작 완성 또는 실현 표시
④	動態 助詞		없음	

《祖堂集》에서 動態助詞의 '過', 즉 '過₂'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으며 이는 南宋시기의 《五燈會元》에 이르러서야 출현한다(林新平 2006: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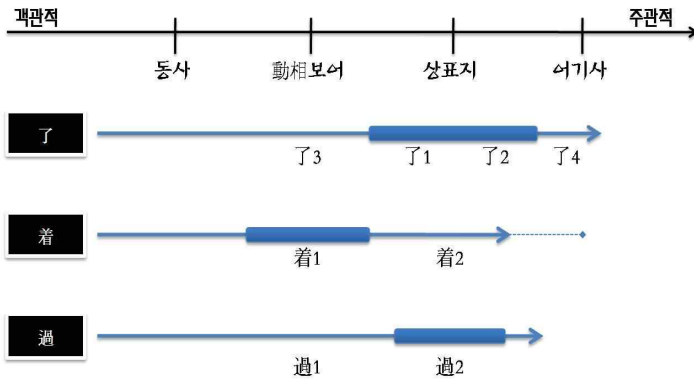
動相보어인 ‘過₁’은 내재상에 관련되며, 경험상인 ‘過₂’는 외재상에 관련된다. 는 점에서 ‘過₁’은 ‘過₂’보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過’의 주관성 배열은 아래와 같다.

(15) ‘過’의 주관성: [過₁ < 過₂]

6.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어의 내재상과 외재상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살펴보았다. 내재상은 화자를 배제한 채, 동사와 (비)논항간의 합성적인 성질을 지니므로 외재상에 비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어 상의 범주는 교차적인 성질을 지니므로(조경환 2009:202), 비록 관점상 표지라 할지라도 ‘了·着·過’의 動相보어 성질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了·着·過’는 모두 지금까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動相보어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주관성의 관점에서 파악한 중국어의 상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6-1> 중국어 상 표지의 주관성



위의 그림 <6-1>에서 알 수 있듯이 ‘了’가 ‘着’나 ‘過’보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着’과 ‘過’ 중 어느 것이 더 주관적이냐는 것이다. 비록 ‘着’의 경우 변천 과정에서 어기사 용법이 출현하여, ‘過’보다 더 주관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着’의 주관성이 ‘過’보다 약하다고 여긴다. 그 이유로는 ‘着’의 어기사 기능은 어디까지나 변이일 뿐, ‘着’의 기본적인 성질은 여전히 ‘부착’ 또는 ‘부착’에 관련된 것이다. 실제로 어기사 ‘着’는 《紅樓夢》이나 《兒女英雄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孫錫信 1999:158).²¹⁾ 반면 ‘過’은 동사 ‘過’에서 ‘過₂’로의 변천해가는 과도기적 산물로서, ‘過’의 기본적인 성질은 ‘過’에 계승되었다. 더욱이 ‘過₂’는 항상 참조시간을 포함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필자는 잠정적으로 중국어 상 표지의 주관성은 [了 > 過 > 着]순이라고 본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주관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란 것인데, 예를 들면 비록 ‘了’가 ‘過’보다 좀 더 주관적인 표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경험상 표지인 ‘過₂’가 動相보여인 ‘了₃’보다 좀 더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了·着·過’ 사이에 주관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공시적으로도·통시적으로도 살펴보았으나, ‘了’가 ‘着’나 ‘過’보다 좀 더 주관화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에 관해서는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參考文獻 >

- Bach Emmon(1986), "The Algebra of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9.
 Brinton, Laurel(1988), "Verb typologies: an approach to aktionsart", *The Development of English Aspectual Systems*, Cambridge Univ. Press.

21)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주관성이 강화되는 과정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성이 약해지는 과정, 즉 탈-주관화(de-subjectification) 현상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被字句의 경우 초기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상당히 주관성이 강한 구문(被+V)이었으나, 施事NP가 출현하며, 긍정적인 의미의 동사가 被字句에 출현함에 따라 주관성이 점차로 약해지는 과정을 겪었다.

- Chang, L.H(2003), *Linguistic Subjectivity and the Use of the Mandarin Le in Convers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 Chao, Yuan-Ren(1968/2004), *A Grammar of Spoken Chinese*, 商務印書館.
- Comrie, Bernard(1976), *Aspect*, 이철수·박덕유 옮김(1998), 《동사 상의 이해》, 한신문화사.
- Leslie Fu-mei, Wang(2002), "Motion Verb to an Aspect Marker: A study of Guo in Mandarin Chinese", *Concentric: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and Linguistics* 28.
- Li Charles and Thompson Sandra(1981), *Madarin Chinese*, 박정구의 옮김(1989), 《표준 중국어문법》, 한울아카데미.
- Ljungqvist Marita(2007), Le, guo and zhe in Mandarin Chinese: a relevance-theoretic account,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 16.
- Xiao, Zhong-Hua, & Anthony McEnery(2004), *Aspect in Mandarin Chinese*, John Benjamin Publishing Co.
- Yang, Suying(1995), *The Aspectual System of Chines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ctoria.
- Verkuyl Henk(1993), *A Theory of Aspectuality*, Cambridge Univ. Press.
- 曹廣順(1986), <《祖堂集》中的底(地)“却(了)”著>, 蔣紹愚·江藍生 編, 《近代漢語研究》 2, 商務印書館。
- 陳前瑞(2008), 《漢語體貌研究的類型學視野》, 商務印書館。
- 陳忠(2009), 《漢語時間結構研究》, 世界圖書出版公司。
- 金立鑫(2000), <現代漢語“了”的時體特徵>, 《語法的多視角研究》,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黎天睦(Light 1991), <黎天睦論着的核心意義>, 王宗炎譯, 《國外語言學》 1。
- 呂叔湘(1948), <‘把’字用法研究>, 《呂叔湘全集(2002)》 第2卷, 遼寧教育出版社。
- 林新平(2006), 《祖堂集的動態助詞研究》, 上海三聯書店。
- 馬希文(1982), <關於動詞了’的弱化型式/·lou/>, 《邏輯·語言·計算》, 商務印書館。
- 木村英樹(1983), 關於補語性詞尾著’/zhe/和了’/le/, 《語文研究》。
- 邵敬敏(1985), <‘把’字句及其變換句式>, 《漢語語法的立體研究(2000)》, 商務印書館。
- 沈家煊(1998), 《不對稱和標記論》, 江西教育出版社。
- 孫錫信(1999), 《近代漢語語氣詞》, 語文出版社。

吳雲(2004), <'過'引伸用法的認知分析>, 《語言文字學》 10.
 楊永龍(2003), <'朱子語類的了'>, 《語法化與語法研究》 1, 商務印書館.
 박중환(1996), <인지문법에 의한 현대 중국어 다의어 연구>, 《중국어언어연구》 5.
 이은수(2003), 《현대 중국어 상 표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경환(2008), 《현대중국어 把字句의 객관성·주관성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09), <중국어의 상 합성에 관한 소고>, 《中國語言研究》 30.
 최규발·조경환(2008), <把字句의 주관성과 주관화>, 《中國語文學論集》 50.

< 中文摘要 >

漢語的體(Aspect)'主要分'內在體(inner aspect)'和'外在體(outer aspect)'. '內在體'是由動詞, 論元和非論元構成, 由于它排除了話者的介入, 所以可以說比較具有客觀性. 而'外在體'的'了·着·過'是根据主觀性和主觀化的程度體現出其不同點. 本文認為按照〔了 > 過 > 着〕的排列順序, 體標記內部也存在一定的差異. 總之, 漢語的外在體在客觀的內在體的基础上, 逐漸具有主觀性.

關鍵詞: 內在體, 外在體, 情狀體, 客觀性, 主觀性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12.23	2010.1.30	2010.2.5	2010.2.8	2010.2.28

